

익산 축제 연이어 흥행몰이

이달 말까지 축제 잇따라, 관광 브랜드 홍보 ·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

익산지역에 서동축제를 시작으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다양하게 개최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빛을 활용한 야간관광, 반려동물 문화축제 등 지역 특색을 접목시킨 축제가 연이어 흥행하면서 상권 활성화는 물론 관광 브랜드 홍보까지 일석 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개최된 서동축제에 10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야간경제 관광 축제로 발돋움했다. 화려한 야간경관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오후와 심야시간대 집중시키면서 체류형 관광 축제로 변화를 시도했다.

이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외국인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1만여명의 반려인들이 참여해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FCI 국제

왕기 맥스fc 무에타이대회 등 각종 대회에 3천여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여해 경기를 즐겼다.

지난 18일 막을 내린 전국승마대회에도 선수와 관계자 1천여명이 익산을 방문했으며 대회 부대행사로 농촌 마을 유료 체험 프로그램과 농산물 홍보 부스가 함께 마련돼 농촌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도 했다.

각종 축제와 스포츠대회로 방문객이 늘면서 숙박업체와 음식점 등도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지역의 대표 숙박업체의 경우 이번 달 객실 예약률이 전월보다 약 12% 증가했으며 경기장 일대에 인파가 몰리면서 지역 상권에 활기가 돌고 있다.

늦가을을 장식할 축제들이 이달 말까지 연달아 개최될 예정이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스포츠 마케팅의 성지로 급부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스포츠마케팅 성지 급부상

익산시, 전국 규모 스포츠인프라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익산시가 스포츠 마케팅의 성지로 급부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시는 골프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승마장 등 전국 규모 스포츠 인프라 경쟁력을 토대로 있던 전국 대회를 유치해 10월 한달 간 방문객만 1만3천 800여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18일부터 16일까지 익산에서 개최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인 '동부건설 · 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이 주최 추산 1만여명의 갤러리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대회는 SBS Golf,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대회 기간 전일 생중계되며 성공적인 흥보 계기가 되었다.

특히 97전 98기 끝에 첫 우승을 차지한 이기영(NH투자증권)이 감동스토리를 탄생시키며 세계랭킹도 12단계 도약한 84위를 차지해 대회를 더욱 빛냈다. 합열여중 · 고 출신의 익산시 홍보대사인 박원경(한국토지신탁)이 공동 4위를 거머쥐었다.

또한 국화축제의 흥보를 위해 진행된 김재열 골프 해설위원의 경기 중 익산 국화축제 홍보 멘트와 타 대회와는 다른 우승 선수에게 물과 국화를 함께 뿌리는 실험적인 방식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켜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오는 22일과 23일에도 전국 대회를 통해 2,300명의 선수들과 임원들이 익산을 찾는다.

익산시 배드민턴협회에서 주최 · 주관하는 제5회 익산주얼리배 전국배드민턴대회가 약 1,000여명의 선수단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주말이틀간 배산살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경기는 랠리포인트제로 예선 리그전 본선 토너먼트가 원칙이며, 모바일 사이트 '오마이민턴'에서 게임 순번 및 코트 번호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마동테니스공원과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배산체육공원 테니스장에서는 제2회 익산타마루배 전국 동호인테니스대회가 펼쳐진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미래 신성장동력 국책사업 발굴 본격화

전문가포럼 전체회의 개최

익산시는 미래발전의 선도한 신성장동력 국책사업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20일 민선 8기 혁신발전의 견인할 2022년 익산시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은 지난해 구성돼 대학 교수 국책 및 지방연구원 박사 등 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전문가 등 32명이 참여하여 4개 분과(산업경제, 농업 · 농촌, 지역개발 · SOC, 문화관광 · 복지)로 운영된다.

이번에 개최된 전체회의는 발굴된 사업의 중요성과 시의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분과 대표사업을 발제

하고 참여위원이 종합 토론하는 장으로, 지난 6개월간 포럼 운영 결과를 보고하는 결산보고회 성격을 지닌다.

앞서 전문가포럼은 지난 4월 산업경제분과의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9월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업부서 참여하는 분과회의를 4~5회 진행하여 익산의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발굴해 왔다.

이번 전체회의 발제는 지능형 농기계 농작업 실증기반 구축사업, (국립) 통합형 노인 일자리센터 건립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각 분과에서 발굴된 사업 중 국가예산사업으로 반영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되었으며, 후속 작업으로 사업기획서 작성 등을 통해 사업 논리를 보강할 계획이

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올해에 발굴된 중요사업을 대상으로 내년도 시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후속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내년에도 전국적 전문가그룹 중심의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을 지속 운영하여 익산시의 새로운 미래먹거리와 성장동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의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은 신성장동력 사업발굴은 물론 20여 차례 회의에 16개 사업부서가 참석하여 전문가와 익산시 부서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장으로서 효과도 기대하며, 내년에는 찾아가는 전문가포럼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보건소, 만65~69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군산시보건소는 20일부터 만65 ~ 69세 인플루엔자(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만 6개월 ~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만65세이상 고령층이다.

지난 12일부터 만 75세 이상 17일부터 70~74세 접종을 시작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은 어린이와 임신부와 달

리 올해 접종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정부 지원대상이 아닌 만 14~64세 연령층은 유료로 접종할 수 있고 직접 백신제조를 통해 물량을 구비해 동네 병 · 의원에서 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독감 백신은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원발에 코로나19백신을 맞았다면 오른쪽에 독감백신을

맞으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주위에서 자주 독감환자를 목격할 수 있어 독감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동시에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해 백신 접종으로 안전한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소 예방접종실(☎460-0014, 3237)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관 기자

군산시, 예비맘 사전 건강검진 · 엽산제 지원

군산시는 20일 임신 준비 중인 예비 · 신혼부부 초산 전 가입기 여성을 위해 사전 건강관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 상 군산에 거주하는 초산전 임신준비 여성에게 매주 화, 목 오전 산전검사(풍진 및 32종검사)를 지원하고 엽산제 3개월 분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임신 전 건강검진을 통해 태아에게 수직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예비 산모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또 임신 초기 엽산이 부족하면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유발해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어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전인 경우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검사결과는 검사 1주일 후 보건소에서 개별 연락을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계(☎460-3245)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위생등급제 참여 34개 음식점 현장점검

군산시는 20일 2022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34개소(위생등급지정업소 및 유효기간 만료 업소) 중 19개 업소에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했으며, 매우우수 11개소, 우수 3개소, 좋음 5개소로 대체적으로 양호했다. 지정이 종료되는 15개 업소에는 등급표지판 반납 등을 안내했다.

이번 점검을 위해 시는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에 적용된 기준을 점검했다.

점검내용은 식품위생법 필수사항(식중독 발생이력 등), 위생분야(객석/객식, 조리장, 화장실, 종사자 위생관리 등)와 유효기간 종료업소에 등급표지판 게시 확인 및 위생등급지정서 등급표지판 반납 등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군산에 등록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대체적으로 운영을 양호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익산시, 농어촌도로 확장 금마면 지역교통 개선

익산시가 '금마 누동~신촌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완료하고 전면 개통했다.

이번 공사는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 금마면 신촌마을 진입 구간 1.0km의 도로폭을 8m로 확포장하는 공사가 준공되었다.

그동안 신촌마을 진입 도로는 폭이 4m로 협소하고 병목현상이 발생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신촌마을 인근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됐다"며 크게 반겼다.

시 관계자는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도로 개선과 지속적 관리를 통해 시민 교통 편의를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캠페인